

뉴욕 면화 시세 계속 떨어져 50 센트 머지않아 깨질 듯

뉴욕(NY) 면화 정기 시세(棉花 定期 市勢)의 기근물(期近物 : 受渡 期日이 다가온 것) (7월 것)은 2009년 6월 중순 이후로 소폭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5월 중순에는 한때 60 센트를 웃돌기도 하였으나 5월 13일에는 다시 50 센트 대(臺)로 돌아와, 6월 22일에는 50.51 센트로 떨어져, 머지않아 50 센트가 깨질 것 같다.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대두나 옥수수 등 농작물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주식 시장도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이 2009년 세계 경제 실질 성장률을 마이너스 2.9%로 예측하는 발표가 있어, 6월 22일의 NY 주식 시장은 큰 폭으로 떨어져, 다우 공업주(DOW 工業株) 30종 평균은 전 주말(前 週末)과 비교하여 200 달러 72 센트가 내린 8339 달러 01 센트이며, 면화도 전 주말과 비교하여 2.22 센트나 떨어졌다.

미국 농무성에 의하면 다음 계절인 2009/10년도의 미면 수확고 예상은, 1,325만 표(480파운드 표)로 바뀌지 않고 있지만, 미국 국내의 수요가 줄어 총공급량(總供給量)은 1,990만 표로 1998/99년 이래로 낮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방적 계통에 대하여 대여(貸與)를 꺼리는 것이 면화 등의 원재료 구매를 억제하고 있는 점도 있어, 당분간은 무거운 시황이 이어질 것 같다.♣